

콩 가로줄노린재(*Piezodorus hybneri* (Gmelin))의 온도별 발육특성

백재훈, 이건휘, 최만영, 김두호, 박정규¹

호남농업시험장 식물환경과, ¹경상대학교 농과대학

노린재류는 최근 콩 재배지에서 다 발생되어 콩 꼬투리를 가해함으로써 수량을 감소시키는 주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. 그 중에서 가로줄노린재(*P. hybneri*)는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(*Riptortus clavatus*)와 더불어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주요 노린재이다. 그러나 가로줄노린재에 대한 생태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여, 명주나물 콩 꼬투리를 먹이로 공급하면서 온도별(20, 25, 30°C, 65±5% RH, 16L:8D) 발육기간을 조사한 결과, 본 시험 조건하에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난 및 약충 발육기간은 짧아지는 경향이였다. 25°C에서 각각의 발육기간은 난, 1령, 2령, 3령, 4령, 및 5령 약충기간은 각각 5.0, 3.4, 3.0, 3.4, 3.3 및 5.9일 이었다. 가로줄노린재 난은 15°C에서는 부화하지 못하였으나, 20, 25, 30°C에서 각각의 난 부화율은 81.2, 87.8 및 93.2%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화율이 높아졌다. 25°C에서 성충수명 및 산란수를 조사한 결과, 성충기간은 45일, 이때 총산란수는 496개, 난피 당 난수는 24개 였다.